



안내 : (02)2000-2114 제18596호 11판

mk.co.kr
2026년 1월 6일 화요일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벽란도 정신…韓中 새 항로 열자”

〈고려와 송나라의 무역항〉

한중 비즈니스포럼

李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 항해하는 배” 양국 교역 지속성 강조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교역은 3000억달러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항로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항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중 협력이 장기 교착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타개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실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5년에 2200억달러 수준이었던 양국 교역액은 2022년 3103억 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3000억달러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다”며 “AI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한·한 협력 필요성을 예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A3·8면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고려와 송나라는 교역과 지식의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허베이징 김호영 기자

을 도모했다”며 “더 주목할 점은 외교 계에 부침이 있더라도 교역과 교류만 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속적 교류는 동아시아 안정과 번영, 나아가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관

들은 중단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벽란도는 고려시대 황해도 예성강 하류에 위치했던 국제 무역항이다. 이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 경제사절단으로 방중한 기업인 416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모두 등장했다. 중국 정부에선 허리평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상의는 양국 기업 사이에 총 3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베이징 오수현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본인부담률 10→5% 추진
1522개 질환에 혜택 검토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

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A15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 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인부담률을 인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거액의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과 같다.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은 1522개이며 환자 수는 130만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산정특례에 본인부담률을 일괄적

으로 1%포인트 인하하면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 계산하면 환자 130만

명이 5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는 셈이지만, 실제로는 고액 치료비

에 우선 적용하고 순차 시행해 소요 예산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본인부담률을 5%포인트 일괄 인

하는 방안과 질환별 기준을 두고 초과금액에 한해 5%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

건은 희귀·난치 질환 종류가 많고 본

인부담액도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어느 질환에 먼저 혜택을 주느냐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복막 투석 시

본인부담액이 172만원이지만, 혈우

병은 1044만원에 달한다. 최원석 기자

새해 재테크 B1~8면

건강 빅 모멘텀 C1~8면

국내 1위 골프 플랫폼 기업

5년 만기 후
입회비 전액반환
안전보장

창립 50주년 한정
5년간 연회비
전액면제
연회비면제

담당자 1:1
부킹관리
예약보장

투자자기반
9,000억 원이상
기업가치

무기명 4인 전액
그린피 50% 할인
실용성

전국 골프장 및
명문골프장 400여개
부킹가능
네트워크

SMARTSCORE

문의전화(공휴일 상담가능)
02-6334-0511

매일경제

‘갓성전자’의 힘 단숨에 4457

코스피 새해 신고가 랠리
14만전자·70만닉스 눈앞

한때 70만원 선을 넘어섰던 SK하이닉스도 2.81% 오른 69만6000원에 장을 마쳤다. 관련기사 A2·19·20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날 하루 코스피에서 2조 1667억원을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4671억원, 두산에너빌리티 2134억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코스피의 이익 전망지 상승에 원화 안정세까지 더해지며 외국인 순매수가 강해지고 있어 종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총 1·2위 쿠릴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시총 817조원)와 SK하이닉스(시총 506조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한다. 이날 코스피 상승폭 147포인트 중 68포인트는 삼성전자, 16포인트는 SK하이닉스에서 나왔을 정도다.

대기자금인 예탁금이 급증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도 300에 다시 ‘13만전자’에 올라섰다. 장중 조원을 돌파했다. 김제림 기자

2026년 AI 7대 이슈는…매경 AI 인덱스 A13면

냉장고 속 제미나이 셋프 챗GPT 비서를 품은 TV

CES 2026 오늘 개막

가전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하자 사용자와 문답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해결해주는 ‘일상의 도구’로 변신했다. 관련기사 A4·5면

LG전자도 라스베이거스 풍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더 프리뷰’ 행사에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AI 경험을 구체화했다. 2026년형 LG TV는 업계 최초로 MS 코파일럿·구글 제미나이·오픈AI 챗GPT 등 AI 3대를 모두 탑재해 선택권을 넓혔다. 피부에 와닿는 실용성도 갖췄다. TV에 “미국 서부 5일 여행 일정을 짜줘”라고 말하면 AI가 즉시 계획표를 구성한다.

拉斯베이거스 박소라·박민기 기자

굿바이
안성기
A28면